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일산노인복지관 급식봉사 '푸르매'

“하루라도 빠지면 궁금해서...”

한창 점심 준비에 바쁜 경기도 일산 노인종합복지관(관장 노인)의 11시. 수많은 봉사자들 사이에서 묵묵히 튀김 화덕을 지키는 봉사자들이 눈에 띈다. 6월 27일, 장마가 시작되어 날은 곳고 주방 안은 후덥지근하고 특히 화덕 주변은 다가가기만 해도 온 몸이 땀이 흐른다. 이런 주방을 벌써 6년째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주방 총 지휘자 김정숙 실장이 '일산노인복지관의 열광'로 자신 있게 추천하는 보살들은 바로 '푸르매' 봉사팀이다. 탄현 원각사(주지 정각)에서 처음 만나 일산노인복지관이 개관한 2000년부터 꾸준히 활동해와 이제 복지관이 생활 터전이 되어버린 '푸르매' 팀. 이 복지관과는 서로가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어쩌다 하루 안 나오잖아? 궁금해서 못 견뎌요. 어르신들 얼굴도 어른 어른 거려요. 그럼 꼭 죽제가 생긴 기분이예요.” 우현자(49) 보살의 말에 김근자(48) 보살도, 한순금(51) 보살도 “맞아, 숙제 하러 또 다른 날에 또 봉사 나오잖아”

라면서 맞장구를 친다. 그리고 가끔 주위에서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지체 없이 대답한다. “힘들어도 그때 뿐이지 금세 잊어버려요. 가슴 속에 힘든 일 담고 살면 일 못해요.” 좋은 일 하는 것은 점차 주변에서 알아주는 법이다. 가끔 보살들이 너무 고맙다고 어르신들이 용돈을 털어 사온 음료수며 아이스크림에 감동 받은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그야말로 ‘봉사 할 맛’이 나는 것이다. 또 보살들은 일산노인복지관에 나와서 배운 것도 많다고 말한다. “주방일도 배울 것이 있을까 했는데 많더라고요. 스님들께서 어르신 식사에 들어가는 미역이더 우거지를 잘게 손질하시는 것을 보고는 어르신들 공경하는 마음, 다시 배웠어요.” 푸르매 봉사팀은 지난 6년간의 활동을 통해 봉사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꼈다. 그래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한다. 자신과 이웃의 즐거운 인생을 위해. 글·사진/고양=김강진 기자



이름처럼 항상 싱그러운 '푸르매' 팀의 봉사활동에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의 주방은 활기가 넘친다.

독거노인 후원해 주세요

일산노인복지관에서는 지역 저소득층 및 독거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가정 봉사원을 파견하고 결연 후원 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생활비를 보태 주고 있다.

푸르매 봉사 보살들은 “꼭 필요한 분들께서 복지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연 등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031)919-8677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장애인들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교육'을 하는 복지관이 늘고 있다. 사진은 6월 22일 강북장애인복지관 직업연수생들의 제주도 사진제공-강북장애인복지관 연수모습.

“우리도 일할 수 있어요”

장애인 직업재활교육 기관·후원 기업 늘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재활 교육과 후원 활동이 불교계 장애인복지관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명국) 직업연수생들은 6월 22-24일 제주도로 산업체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일정 중 연수생들에게 가장 와 닿은 것은 제주도에 장애인복지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지역 장애인들을 직접 취업지도 하기 위해 세운 춘강장애인근로센터(이사장 이동한) 방문이었다. 춘강장애인근로센터의 작업실. 귀금속을 재료로 예쁜 장식품과 악세사리를 만드는 모습. 아교폴로 영동하게 빛나는 칠보를 조심스레 붙이는 춘강 장애인들을 지켜보는 강북장애인복지관 연수생들의 눈이 빛났다. 또 근로센터 직원들의 손끝마다 제주도의 특산물 함지박이 만들어지는 모습에서 연수생들은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특히 신행철(25) 씨가

느낀 것이 많았다. 현재 외국계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다는 신씨는 “제주도에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교계 복지관에서는 산업 재할 훈련이나 연수와 함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도록 후원활동도 한다.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각)에서는 ‘강릉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따로 운영하며 떡방앗간을 열고 지체장애인들이 고용해 감자떡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지역 특산물로 팔리는데도 호응이 크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성인)에서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으면서도 ‘불교계에서 먼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면서 특화된 상품 개발 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장애인의 취업 활동은 충분히 경쟁력 있다’며 장애인의 재할과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내보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복지관	주요 재활훈련 사업	연락처
강북장애인복지관	직업 상담 및 진단, 적응 훈련, 미술·음악 등 특별 훈련, 장애별 취업 알선	(033)643-1801-4
강북장애인복지관	연령별·장애별 직업 판단, 직업 교육, 취업알선, 직종 개발 등	(02)989-4215
경주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교육 및 취업 적응 훈련, 보호직업 훈련 등 진행	(054)776-7522-5
대성재활원	취업전·후 교육과 일상 취업, 임시 직업찾기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054)822-8872
영주장애인복지관	취업상담은 물론 스토리텔링 작업, 사업체 개발 등의 특화 사업 운영	(054)633-6415-8
제천장애인복지관	취업지원, 취업 후 교육, 장애인 일반 취업 및 경쟁 채용도 실시	(043)652-0900-3

원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 돕기 운동.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44)씨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향철. 016-547-8672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접어들어,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 **나눔의 범포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포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 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 **나눔의 성공 모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이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외협력사업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등이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시요.

박상현 50,000원	총 누적금액 41,593,050원
-------------	--------------------

수맥파 차단 카드

만병의 근원 수맥파! 가정에 1장이면 우리가족 건강!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병원을 신축할 때 수맥파를 차단하는 동판을 깔다. 병상 밑에서 발생하는 수맥파 때문에 치료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의사들은 만성질환 환자를 치료할 때 치료 효과가 없을 시 환자의 가정에 수맥파를 탐사하는 일이 종종 있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생되어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도 영향을 준다.

일본의 산업화학연구소는 수맥파가 있는 곳을 만병의 근원인다는 뜻에서 “병인성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나 살갗이 벗겨질 때 따라 종종 질환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상태와 우울증과 불면증, 무기력증 등에 시달린다. 또한 학생이 있는 집에 수맥파가 흐르면 시험에 대

한 불안, 초조, 공포감과 자신감을 잃고 산만해진다. 수맥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학술발표가 잇따르면서 살고 있는 주택에 수맥파 차단카드를 붙여주고 있다.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돼 발명특허까지 출원된 수맥파 차단카드의 간단하게 안방장롱 밑에나 침대 밑에 놓고 멜로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20평주거는 완벽하게 차단된다. 수맥파카드에는 5-6개월에 한번씩 햇빛에 3시간 정도 충전하여 사용하면 반영구 수맥파를 차단하고 자고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대단히 가벼워진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수맥파 차단 카드 및 멜로 차단캡 포함 가격 75,000원 문의(02)741-4477 농협053-12-102911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세요

누구나 배울수 있고 정신집중에도 좋고 부업 또는 노후 대책도!

지금까지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것은 수맥지사 또는 氣探문가의 신비스러운 영역으로만 생각해 왔다. 氣의 입자 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미세한 파장이므로 오랜 경험과 경륜에 의해 감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탐지기의 발달로 보편적인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수맥이 사물들 주위의 60-70%가 수맥이 흐르고 수맥파가 발생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집 어느 곳에서 몇미터 땅속에 수맥이 흐르고 물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대단히 궁금하다. 그렇다고 지사를 모시게 되면 수십만 원을 드려야 하므로 그냥방치하고 살다보내니 건강에 해를 입는다. 그림 1 같이 수맥 탐지기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 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십자가 모양으로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준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불경에 일각해 부처님부처자 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들어진 영험의 관세음보살 부자지갑은 관세음보살 수진인 42가지 영험 중 1번으로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인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 금은 보화가 들어오며 땅을 소유하고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는다는 영험을 담고 있다. 관세음보살 부자지갑은 내부구조가 일반 지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섬세하게 꾸며져 있다. 지갑앞면에는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고 영험의 불력으로 금은 보화를 들어오게 하는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약기와 집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부착해 자신감을 갖게했다. 여성용장지갑에는 귀금속 장신구 지퍼주머니가 내부에 만들어져 있고 신분증, 면허증, 주민등록증을 꽂을 수 있는 창 3개와 만원권 천 원권 및 수표, 영수증, 명함꽂이 공간과 신용카드 11개를 꽂을 수 있으며 지갑 뒷면에는 동전 지퍼주머니가 별도로 있는 보물까지도 얻는다는 영험을 담고 있다. 관세음보살 부자지갑은 내부구조가 일반 지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섬세하게 꾸며져 있다. 지갑앞면에는 고통과

신비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다. 안팎면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모직전에서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을 만들지 못해 못팔고, 팔지 못하는 부동산이 팔리고, 잃어버린 돈이 들어오는 등 영험이 끝나고 관세음보살 축복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색상은 보화와 보물이 들어온다는 뜻에서 보라색으로 여성이 보라색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가정의 번영하고 보화가 끈이지 않는다는 영험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며 남아공용반지갑 5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이다. 문의(02)741-4488 입금농협:053-12-102911